



‘꿈의 무대’인 마스터스 골프대회에 ‘뱅크’ 최경주(왼쪽)와 ‘비람의 아들’ 양용은이 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골프클럽 연습장에서 드라이버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권도 경량급 세계최강 최연호 모교 조선대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



(부흥고)에게 발목을 잡혀 기회를 놓쳤다. 최연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며 올해 세계 대회에 나서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최연호는 올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은퇴 무대로 삼기로 했다. 최연호의 은퇴 결심에 모교인 조선대는 그에게 감독직을 맡겨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한국 나이로는 서른을 넘긴 최연호가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는 태권도 선수로서는 환갑이나 다름없는 나이이다. 특히 선수층이 두터운 한국에서, 그것도 체중 관리가 중요한 최경량급에서 서른 가까이 선수로 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54kg 급인 최연호의 평소 체중은 61~63kg이다. 대회에 출전하려면 보통 8kg급을 빼야 한다. 체중이 쉽게 줄지 않으면 대회 1주에서 열흘 전부터 굶다시피 하면서 운동한다. 그렇게 하면서 최연호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유지해 왔다. 철저한 자기 관리 없이는 못 할 일이라고 그는 후배들에게 늘 본보기가 돼 왔다. 최연호는 “세계선수권 5회 우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아쉽지만, 후배들을 열심히 키우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태권도 경량급 최강자로 세계무대를 호령했던 최연호(30)가 모교 조선대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 1일부터 최연호가 태권도부 감독을 맡았다”고 밝혔다. 최연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차례(2001, 2003, 2007, 2009년)나 우승을 차지한 태권도 종주국의 간판스타다. 최연호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201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노렸으나, 지난달 13일 열린 국가대표 선발 최종 평가전에서 락아웃을 당해 박지영

호랑이 2군무대 개막전 패배

2011 퓨처스리그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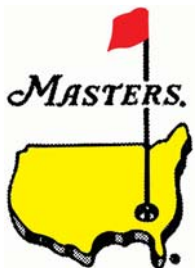
루키 홍건희 오늘 첫승 사냥

5일 상무와 경찰청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퓨처스리그의 달이 올랐다.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KIA 타이거즈는 1-9로 역전패를 당하며 1·2군 모두 개막전 패로 2011시즌을 시작했다. KIA는 2회말 무사 1루에서 터진 이준호의 2루타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선발 차정민이 8실점으로 부진했다. 차정민은 3회초 1사 만루에서 오준혁에게 동점타를 허용한 뒤 박노민과 나성용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5점을 내줬다. 5회에는 박노민에게 3점포를 맞은 등 8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6일 루키 홍건희를 선발로 내세우고 퓨처스리그 첫 승을 겨냥하게 된다. 시범 경기에서 두둑한 배짱으로 주목받았던 홍건희는 개막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받은 뒤 1군 무대를 노크하게 된다. KIA는 8일부터 무등야구장에서 롯데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9일 경기는 고교 주말리그 관계로 함평구장에서 열린다. 한편 2011 퓨처스리그는 남부리그 5개팀(KIA, 삼성, 한화, 롯데, 넥센)과 북부리그 5개팀(상무, 경찰, LG, SK, 두산)이 동일리그



팀과 18차전 대결을 벌이며, 타 리그 팀과는 6차전씩 팀당 총 102경기를 치른다. 오는 19~21일에는 KIA가 군산에서 넥센과 만나는 등 프로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군산과 춘천에서도 퓨처스리그가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파워’ 마스터스 제왕 꿈꾼다



‘골프 명인 열전’ 내일 오거스타서 개막
최경주·양용은 등 8명 꿈의 무대 도전

골프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명인 열전’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7일(미국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75회를 맞는 마스터스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다. 이 대회의 초청장은 역대 우승자 외에 지난 5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자, 전년도 USA마추어선수권대회·US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 우승자, 세계랭킹 50위 이내의 선수 등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골퍼 100여 명에게만 간다.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입히는 ‘그린 재킷’은 모든 골퍼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옷이기도 하다. 골프 명인들이 모두 모이는 올해 마스터스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한국 선수

(재미교포 포함)가 출전해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1973년 대회 때 한장상 현 한국프로골프협회 교문이 오거스타 골프장에 첫발을 디디고 나서 2000년 당시 고교생이었던 김성운(28)이 출전할 때까지 23년이 걸렸다. 2003년 최경주(41·SK텔레콤)가 마스터스에 출전한 뒤 양용은(39)으로 이어지는 한국 선수의 마스터스 출전사는 한국골프의 발전과도 맥이 통한다. 최경주와 양용은이 선두에 서고 세계골프의 미래를 짊어준 한국 및 한국계 선수들의 선전이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이유다. <작년에는 톱10 = 최경주는 올해까지 9년 연속 마스터스 초청장을 받은 한국골프의 간판이다. PGA 투어 데뷔 때부터 꼭 그

린 재킷을 입겠다는 각오를 다져온 최경주는 2008년 소니 오픈 우승 이후 PGA 투어에서 7번 우승했지만 마스터스의 그린재킷을 입어보진 못했다. 최경주는 작년 대회에서 우즈와 1~4라운딩을 같은 조에서 했지만 공동 4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작년 4라운드에서 사흘 내내 버디를 잡았던 13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그린 너머의 벙커에 빠뜨려 1타를 잃고 흠뻑땀을 흘리며 우승에서 멀어졌다.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 챔피언인 양용은도 작년 이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대회에서 3위까지 올랐던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은 지난주 열린 셀 휴스턴 오픈에서 공동 13위를 차지하며 깜짝 우승을 기대하게 했다. /연합뉴스

이 밖에 작년 일본프로골프 상금왕인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2010 브리티시아마추어 골프대회 우승자인 정연진(21)이 출전한다. 또 US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 우승자인 재미교포 라이언 김(22·한국이름 김준민)도 생애 처음으로 마스터스에서 기량을 펼친다.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스탠퍼드 대학생인 데이비드 정(21)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미국의 지존심 대결 = 예전 같으면 누구나 미국의 우즈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겠지만 올 들어서는 유럽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는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세계랭킹 1위인 카이머(독일) 등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에서도 미켈슨이 마스터스 전초전인 셀 휴스턴 오픈에서 우승하며 견제를 과시했고, 장타자인 더스틴 존슨과 헨터 메이헌 등 신예들이 급성장해 유럽 선수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종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따뜻하고 아늑한 객실과 24시간 룸서비스와 여행에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뼘한뼘 바느질로 꼬매어 정성스레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